

설화<콩쥐팥쥐>에서 나타난 경쟁 문제와 승리의 서사로서의 가치*

박 재 인**

- I. 서 론
- II. <콩쥐팥쥐>의 전반부만 기억되는 현상에 대한 고찰
- III. 불합리한 경쟁 환경 극복과 승리의 서사로서의 가치
- IV. 결 론

• 국문초록

이 연구는 동화로 더욱 익숙해진 <콩쥐팥쥐>의 서사 내용 중, 전반부만 중시되고 후반부는 망각되는 현상에 집중해, 그 원인을 밝히며, 후반부의 내용이 지닌 현대적 가치를 전달하고자 하였다. <콩쥐팥쥐>의 이야기 형태를 ‘계모의 박해와 귀인으로부터의 구원’으로만 기억하고 있는 현상이 만연하여, 범세계적 신데렐라형 이야기가 지닌 통념의 의미 범주를 넘어서는 <콩쥐팥쥐>만의 특색이 인식되는 않고, 온전한 형태의 <콩쥐팥쥐>가 지닌 서사적 가치가 전승되지 않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2장에서는 <콩쥐팥쥐>의 전반부만 기억되는 현상의 원인에 대해 살펴

* 이 글은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2013년 문화유산 창의적 활용 논문 공모전 수상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교수

보았다. <콩쥐팍쥐>의 전반부만 기억되는 요인 가운데 하나는 현대적 매체로 향유되는 <콩쥐팍쥐>의 형태가 전반부까지만 제시되어 있다는 점을 들었다. 동화로 각색되면서 어린이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삭제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실제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하여 후반부에 대한 거부감을 분석하였다. 이 설화에 대한 청소년의 반응을 살펴보았는데 후반부의 잔혹성과 생경함이 원인이 되기도 하였지만, 더 중요한 요인은 수용자의 내면 상태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난관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쟁 환경을 소화하기를 거부하거나, 승리의 서사가 지닌 힘이 내재화 되어 있지 않은 내면이 <콩쥐팍쥐>의 서사와 충돌하여 이해와 기억을 방해할 수 있다고 논하였다.

3장에서는 <콩쥐팍쥐>의 전·후반부가 지닌 서사적 의미와 가치를 밝혔다. 텍스트 상에서는 상이하지만 전·후반부의 주요 갈등은 권위자의 은혜를 두고 벌어지는 경쟁 문제이다. 이 설화에는 권선징악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을 주는 이야기이기보다는 치열한 자세로 임해야 하는 불합리한 경쟁 환경이 반영되어 있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난관이 빈번하게 출몰하는 불합리한 경쟁 문제를 극복하는 서사가 전개되고 있다. 불합리한 경쟁자에 대한 처벌과 그로부터의 승리 과정, 경쟁질서 속에 자기 정당성을 입증하는 서사적 가치는 후반부의 생경함을 외면하지 않을 때 오롯이 드러난다. 이렇게 <콩쥐팍쥐>의 온전한 서사 형태는 공정하지 못한 경쟁에서 벌어지는 소외감을 물리치는 이야기로서 문학치료적 효용성을 기대할 수 있다.

이 연구를 통해 범세계적 신데렐라형 이야기의 보편성을 넘어서 우리의 <콩쥐팍쥐>만이 가치가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콩쥐의 경쟁과 승리 스토리는 ‘신데렐라 콤플렉스’에서 벗어나, 우리의 인생살이에서 필연적으로 직면해야 한다는 성숙된 인식과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승리의 가치가 드러난 한국의 문화자산인 것이다. 이 설화의 후반부가 지닌 의미가 정당하게 평가되어서 자칫하면 사라질 수 있었던 우리의 문화유산이 온

전히 보존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주제어

<공쥐팔쥐>, <공쥐팔쥐> 전승 현황, <공쥐팔쥐>의 현대적 전승 방안,
불합리한 경쟁 환경, 승리의 서사

I. 서 론

<콩쥐팍쥐>는 구비전승 되는 설화들 가운데 계모형 이야기의 대표 작품이다. 그리고 범세계적 설화 유형인 ‘신데렐라형 이야기’로 주목받아 왔지만, 한편으로는 신데렐라형 이야기가 지닌 통념의 의미 범주를 넘어서는 <콩쥐팍쥐>만의 특색이 뚜렷하게 인식되어 온 것은 아니다.¹⁾ <콩쥐팍쥐>만의 특색이 인식되기 어려운 까닭 가운데, 대다수가 <콩쥐팍쥐>의 이야기 형태를 ‘계모의 박해와 귀인으로부터의 구원’으로만 기억하고 있는 현상을 그 요인으로 들 수 있다.²⁾

한국의 연구자들 가운데 다수가 <콩쥐팍쥐>의 기본 구조를 ‘계모와 팍쥐의 박해-하늘의 도움-귀인과의 결혼-팍쥐에 의한 살해-부활 및 변신-복귀와 팍쥐에 대한 처벌’로 보고 있는 데³⁾에 반해, 우리의 생활 속에서는

- 1) 한국의 <콩쥐팍쥐>가 범세계적인 설화 유형에 속한다는 논의는 1929년 최남선에게서 처음 시작되었으며, 장덕순, 『『CINDERELLA』와 『콩쥐팍쥐』』, 『국어국문학』 제16집, 국어국문학회, 1957, 123~130쪽에서는 동서양의 공통 이야기에 가정의 계모설화가 결합되어 ‘신데렐라’계 이야기가 형성된 것으로 추정할 바를 밝혔다. 김기창, 『『콩쥐팍쥐』와 『신데렐라』의 비교 고찰』, 『국제어문』 제8집, 국제어문학회, 1987, 135~158쪽에서는 <콩쥐팍쥐>가 중국으로부터 유입되어 계모설화로 변모되었다가 소설화되었다고 보았다. 한편 권순공은 서양의 <신데렐라>의 영향으로 1920년대 소설<콩쥐팍쥐전>이 생성되었고 민담으로 파생되었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서는 권순공, 「<콩쥐팍쥐전>의 형성과정 재고찰」, 『고소설연구』 제34집, 한국고소설학회, 2012, 251~283쪽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 세계의 신데렐라형 이야기를 비교분석한 오운선 역시 콩쥐가 결혼한 후 전개되는 이야기가 더 전개되는 것이 <콩쥐팍쥐>가 지닌 특색이라고 논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오운선, 「세계의 신데렐라유형 이야기군 속에서의 <콩쥐팍쥐 이야기> 고찰」, 『동화와변역』 제11집, 건국대 동화와변역연구소, 2006, 261~289쪽에서 참조.
- 3) 이관일은 민속학적 접근을 통해 신데렐라의 모형태와 비교하여 <콩쥐팍쥐>는 전반부와 후반부가 상보하면서 연결되는 이야기로 그 특징을 규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관일, 「<콩쥐팍쥐> 이야기 재고」, 『겨레어문학』 제6집, 겨레어문학회, 1972, 24~39쪽에서 참조. 권순공은 <콩쥐팍쥐>의 고행은 결혼이 없는 계모박해담으로 보고, 기본서사는 팍쥐의 시샘으로 콩쥐가 살해당했다가 복수하게 되는 후반부가 포함된 형태로 보며, 임석재가 채록한 전복의 민담(1918)과 평북의 민담(1935)이 원형에 가깝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서는 권순공, 「<콩쥐팍

<콩쥐팥쥐>의 전반부만이 기억되는 경향이 있다. 연구자가 서울 소재 대학교의 재학생 9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0%이상이 <콩쥐팥쥐>의 전반부만을 기억하고 있었고, 단 3명만이 온전한 형태로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대다수의 학생들이 <신데렐라>와 헷갈린다고 말하였다.⁴⁾

이에 본 연구는 현재 한국인이 기억하는 <콩쥐팥쥐>의 형태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콩쥐팥쥐>의 의미와 가치가 온전히 전승되고 있는 것인지를 고찰해보고자 한다.⁵⁾ 먼저 <콩쥐팥쥐>의 현대적 전승 현황을 검토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콩쥐팥쥐>에 대한 반응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전반부만 기억되는 현상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후반부의 서사가 포함된 온전한 형태야말로, <콩쥐팥쥐>의 서사적 가치가 온전하게 낼 수 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 작품의 인물구

쥐전>의 형성과정 재고찰」, 『고소설연구』 제34집, 한국고소설학회, 2012, 251~283쪽에서 참조.

- 4) 연구자는 2012년 2학기 건국대학교 교양수업을 수강하는 재학생들 90여명을 대상으로 설화<콩쥐팥쥐>의 전승 현황을 조사한 바 있다.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옛이야기 <콩쥐팥쥐>의 줄거리를 적어 보세요.”라는 문항을 제시하여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16명이 콩쥐가 계모로부터 박해당했다는 지점까지만 기술하였고, 58명 가량이 원님과 만나 결혼하였다까지 기술하였다. 80%가 넘는 인원이 <콩쥐팥쥐>의 전반부만을 기억하고 있었으며, 그 가운데 3명 가량이 후반부가 포함된 줄거리를 기술하였다. 표본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조사이지만, 대학교에 재학 중인 집단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인 만큼 <콩쥐팥쥐>의 전승 현황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5) 후반부가 제거된 형태로 <콩쥐팥쥐>이 이야기가 전승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선행 연구들은 텍스트 상에 전해지는 잔인함과 생경함이 원인이 되었다고 보고 있다. 이를 두고 이야기 전개의 합리성을 위하여 민담적 사유가 제거되어 소설화 되었다고 하거나, 아동 독자들을 고려하여 제거되었다고 본다(권순궁, 앞의 논문, 251쪽). 한편 오윤선은 세계의 신데렐라 이야기 가운데 <콩쥐팥쥐>의 특징을 혼인 이후의 고난담이 있다는 점이라고 보면서 ‘신데렐라 콤플렉스’가 적용될 수 없는 것이 <콩쥐팥쥐>의 의의라고 평하고 있다. 오윤선은 원래의 이야기에서는 여주인공의 결혼이 고난 해결의 해법이 아니었고, 적대자에 대한 잔인한 응징도 극대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콩쥐팥쥐>가 동화화 될 경우 후반부가 제거되면서 주인공의 모습이 나약한 모습으로 변해갔다고 비평한다(오윤선, 앞의 논문, 270쪽). 결혼 후 고난이 전개되는 후반부에서 한국의 <콩쥐팥쥐>가 지닌 특별함이 부각된다는 바는 본고의 관점과 유사하다.

도와 핵심사건에서 드러난 경쟁의 문제를 분석하고, 후반부에 부각된 승리의 서사⁶⁾로서 가치를 논하였다.⁷⁾ 텍스트 속에 내재된 인간 문제의 진

6) 문학치료학에서는 작품서사와 자기서사의 특성 및 경향성을 파악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다수의 서사들 사이에 그 서사가 지닌 위계를 헤아리는 방식을 제안해온 바 있다. 정운채는 관계의 속성에 따라 서사의 영역을 가른다거나, 서사적 전개에 따라서 가르기·밀치기·되찾기·감싸기의 서사 양상을 구분하기도 하였다. 게다가 건강하지 못한 서사를 건강한 서사로 개선하고자 하는 치료 및 교육과 성장에 목적을 두고, 사람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서사의 발달단계, 성장 단계를 제안하였다. 자기서사의 성장과정을 좌절의 서사, 승리의 서사, 상생의 서사로 보면서 문학치료 방식의 치료 및 교육의 틀을 구안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정운채, 「문학치료와 자기서사의 성장」, 『우리말교육 현장연구』 제4집 2호, 우리말교육 현장학회, 2010, 7~54쪽에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보고는 서사의 성장과정을 염두에 두고 설화<콩쥐팍쥐>가 지닌 승리의 서사로서의 힘과 문학치료적 효용성을 논하려는 것이다.

7) 문학치료학에서는 서사(敍事,epic)가 인생살이나 텍스트의 심층에 존재하는 것이며, 사람이나 작품은 각기 보유하고 있는 서사에 의하여 인생살이나 작품의 텍스트를 구성해나간다고 전제하고, 서사를 매개로 사람과 문학작품 간의 소통을 통하여 사람이 치료 효과를 획득할 수 있다고 치료원리를 논한다. 문학치료학의 서사는 ‘인간관계의 형성, 위기와 회복에 대한 서술’로 정의되는데, 텍스트의 서사를 분석한다는 것은 서사의 주체와 대상의 관계적 특성에 따라 사건 전말의 구조에 담긴 우리 삶의 문제를 고찰하는 작업을 말한다. 본 연구의 방법론은 문학치료학의 서사이론에 따르고, 향후 문학치료 활동을 염두에 둔 작품 분석 연구라 할 수 있다.

문학치료학적 방식으로 설화<콩쥐팍쥐>를 연구한 성과들로는 콩쥐에 초점을 맞추어 ‘의존과 무기력’의 방식으로 관계를 꾸려가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우울증적 성향을 포착해낸 강미정, 「우울증 서사로 보는 <콩쥐팍쥐>·<상사뱀>·<고분지동>」, 『한국고전연구』 제16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7, 265~292쪽이 있으며, 이와 유사한 관점에서 <콩쥐팍쥐>를 기점으로 하여 우울성향으로부터 극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서사지도를 구안해낸 성정희, 「우울증에 대한 문학치료학적 접근과 서사지도」, 『문학치료연구』 제14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10, 141~166쪽도 있다. 한편 조은상은 <콩쥐팍쥐>를 통해 어머니와의 관계를 어떻게 지각하고 있으며, 어머니에 대한 감정을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하는지 알 수 있는지 진단할 수 있는 지점을 밝혀, 실제 임상을 거쳐 3·40대 여성과 아동에게서 동일한 반응을 추출해 내어 <콩쥐팍쥐>가 지닌 우울성향에 대한 진단적 효용성을 입증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조은상, 「<콩쥐팍쥐>에 대한 반응을 통해 본 부모가르기서사와 우울성향 자기서사」, 『문학치료연구』 제13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09, 139~181쪽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우울증과 관련된 서사적 의미를 도출해내어, 이상심리에 대한 문학치료적 진단과 치료방향을 고찰한 성과라 할 수 있다.

실을 서사 분석을 통해 밝혀냄으로써, 우리의 인생살이에서 필연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경쟁의 문제를 <콩쥐팥쥐>가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그 서사적 가치를 확인하려는 것이다.

이 연구는 동화로 더욱 익숙해진 <콩쥐팥쥐>의 서사 내용 중, 전반부만 중시되고 후반부는 망각되는 현상에 집중해, 그 원인을 밝히며, 후반부의 내용이 지닌 현대적 가치를 전달하고자 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이 연구를 통해 ‘신데렐라형 이야기’의 통념적 의미 범주를 넘어선 <콩쥐팥쥐>만의 특색을 드러내고, 자칫하면 사라질 수 있었던 우리의 문화유산 <콩쥐팥쥐>의 가치가 온전히 보존되는 성과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II. <콩쥐팥쥐>의 전반부만 기억되는 현상에 대한 고찰

<콩쥐팥쥐>의 전반부만 기억되는 원인 가운데 하나는 현대적 매체로 향유되는 <콩쥐팥쥐>의 형태가 전반부까지만 제시되어 있다는 점이다. 대다수가 아동을 대상으로 창작된 것들이며, 그 연령층을 고려하여 스토리를 단순화하였거나, 권선징악에 대한 교훈성을 강조하기 위해 후반부의 침삭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전래동화 도서들 가운데 2008년 지경사에서 출간된 『콩쥐팥쥐』⁸⁾는 콩쥐가 아량을 베풀어 원님이 팥쥐모녀에 대한 처벌을 거둔 것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다. 계림에서 출판된 『별하나 책하나 전래동화 08 -콩쥐팥쥐』의 경우는 팥쥐와 계모가 개심한 것으로 끝을 맺고 있다.⁹⁾ 이 두 권의

8) “콩쥐는 원님에게 그동안의 일을 모두 이야기했어요. 원님은 쾌심한 생각이 들어 새어머니와 팥쥐를 혼내주려 했지요. 하지만 콩쥐가 눈물을 흘리며 말리는 바람에 마침내 용서해주기로 했습니다.” 이효성, 『콩쥐팥쥐』, ㈜지경사, 2008, 35쪽에서 인용.

9) “마음씨 착하고 예쁜 콩쥐는 하늘의 복을 받아 원님과 혼인을 했어요. 팥쥐와 새어머니는 그 동안의 잘못을 뉘우치고 착한 사람이 되었대요.” 초록개구리,

동화책의 경우는 아동들에게 인간 본성적 선함에 대한 신뢰감을 심어 주고자 하는 의도가 돋보인다고 할 수 있다.

영상자료에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EBS에서 방영되었던 <몽몽 인형극장 -콩쥐팥쥐>를 들 수 있다. 이 작품에서도 콩쥐가 원님이 혼인하게 되는 결말로 끝이 나며, 팥쥐 모녀는 그 사실에 매우 배가 아파했다고 마무리되고 있다.¹⁰⁾ 이 밖에도 영상물로 제작된 <콩쥐팥쥐>가 다수 발표되어 왔으나 대다수가 전반부만을 담고 있었다.



전반부까지만 제시되어 있는 현대의 <콩쥐팥쥐>는 인간 본성적 선함에 대한 신뢰감이 부여해준다면

권선징악에 대한 교훈적 의미가 강조되어 있어 아동용 서사물로서 장점이 있다. 하지만 후반부가 제거됨에 따라 <콩쥐팥쥐>의 특색도 부각되지 않고, 본고에서 말한 인간 문제의 진실을 담은 서사적 가치도 드러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 이러한 형태만이 생산되는 까닭에 우리의 기억 속에서 후반부에 대한 것을 희미해지고, 성인도 흥미롭게 향유할 수 있는 <콩쥐팥쥐> 콘텐츠가 부족하게 되었다.

<콩쥐팥쥐>의 전반부만 기억되는 까닭은 이야기 후반부에 불쾌함을 자극하는 장면이 많고, 그 갈등의 깊이가 심각하다는 점에 있다. 수용자는 잔혹하고 생경한 장면들과 인물들의 갈등이 의미하는 바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함으로써 후반부가 제외되는 방식으로 기억하는 것이라고 추론된다. 잔혹하고 생경한 장면으로부터 노출되는 인간 문제의 갈등과 국민의 무게감에 대한 거부감이 후반부에 대한 기억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별하나 책하나 전래동화 08 -콩쥐팥쥐』, 계림, 2004, 27쪽에서 인용.

10) “팥쥐모녀는 어떻게 되었느냐고요? 오래 오래 배가 아파했대요. 그리고 콩쥐와 원님은 오래 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EBS몽몽인형극장-콩쥐팥쥐, <https://www.youtube.com/watch?v=xYLoBZ4b56o>)

이러한 사실은 다음의 조사 결과로 설명된다.

연구자는 <콩쥐팥쥐> 후반부에 대한 기억의 정도와 그 이유를 상세하게 파악하고자, 18세 청소년 5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¹¹⁾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콩쥐팥쥐>가 어떤 형태이며 그에 대한 정서반응은 어떠한지를 1차적으로 조사하고, 이어 연구자가 <콩쥐팥쥐>의 후반부까지 구연해주고 같은 방식으로 2차 조사를 하였다. 마지막으로 <콩쥐팥쥐>에 담긴 서사적 의미를 간략하게 전달하고 같은 방식으로 3차 조사를 하였다.¹²⁾ 기억 속에 남은 <콩쥐팥쥐>에 대한 반응, 후반부가 첨가된 <콩쥐팥쥐>에 대한 반응, 서사적 의미를 제공받은 후에 반응을 비교 분석하기 위한 의도였다. 1차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 | 조사대상A | 조사대상B | 조사대상C | 조사대상D | 조사대상E |
|----|------|-------|-------|-------|-------|-------|
| 1차 | 기억진술 | 전반부 | 전반부 | 전반부 | 전반부 | 전반부 |
| | 정서반응 | 보통이다 | 흥미롭다 | 보통이다 | 보통이다 | 감동적이다 |

1차 조사 결과, 5명 모두 줄거리의 전반부만 기술하였다. 그리고 3명이 ‘보통이다’를 선택하였고, 2명이 각각 ‘흥미롭다’, ‘감동적이다’를 선택하였다. 여전히 전반부만 기억되고 있는 현상이 포착되었으며, 그에 대한

11) 이 조사는 2013년 1월 5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조사 방식 자체가 3차례 걸쳐 이루어지며, 가감승제 방식으로 조사 결과를 산출할 수 없는 형태였기 때문에, 5명에 한정하였다. 5명의 청소년은 18세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며, 남성3명, 여성2명의 성별을 비중을 비등하게 고려하였고, 또한 생활환경이나 학업성취도(국어과목)도 유사한 학생들로 선별되었다. 양적연구로서의 객관성이 부족한 인원이지만, 객관적 조건이 유사하고, 특별한 변인(예컨대, 성장환경이나 교육환경이 특별한 경우)이 없는 대상으로 선별한 점에 유의했음을 밝혀둔다.

12)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콩쥐팥쥐>에 대한 정서반응은 리커트척도로 조사하고, 그 줄거리를 기술하게 하였다. 이는 문학치료학에서 자기서사를 진단하는 기술 중에 기억진술형과 정서반응형에 해당한다. 2013년 초에 문학치료학의 정립자 정운채가 구안한 방법임을 밝혀둔다.

정서반응은 평범하거나 긍정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은 2차 조사 결과이다.

| | | 조사대상A | 조사대상B | 조사대상C | 조사대상D | 조사대상E |
|----------|----------|--|---|---|--|--|
| 2차 | 기억 진술 | 전후반부 처벌장면O | 전후반부 처벌장면O | 전후반부 처벌장면O | 전후반부 처벌장면X | 전후반부 처벌장면X |
| | 정서 반응 | 흥미롭다 | 거부감이 든다 | 흥미롭다 | 거부감이 든다 | 거부감이 든다 |
| 추가 반응 | | 전반부 형태 가 더 낫다. 한 만큼 당 한다. 콩쥐 의 환생 역 시 보답이다. | 착하게 살더라도 끝이 좋을 수 없 다. 나쁜 사람들 에 의해 다 죽어 버린다. 팔쥐가 참 독하다. | 다 자극적이어 서 기억에 확 실히 남았다.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어야 한다. 한 만큼 돌아온다. | 팔쥐를 어미에게 먹이는 것은 너무 하다. 감옥을 보내 면 되지 않나. 자 식이 먼저 죽는 것이 큰 죄라는데, 먹이는 것까지는 잔인성의 끝이다. | 슬프고 무섭다. 인간의 이기적 인 면이 보인 다. 한 번 참으 면 되는데. 처 음부터 잘 했어 야 한다. 원님 이 문제이다. |

2차 조사에는 후반부가 포함된 형태의 줄거리를 제공한 후에 줄거리 기억과 정서 반응을 검사하였다. 5명 모두 후반부까지 줄거리를 기술하였으나, 조사대상 D, E의 경우는 잔혹함이 부각된 처벌 장면을 소거한 상태로 기술한 특징을 보였다. 그리고 2명이 ‘흥미롭다’, 3명이 ‘거부감이 든다’로 정서를 표현하였는데, 1차 결과와 달리 후반부 줄거리를 알게 된 후에는 부정적인 정서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으로 <콩쥐팔쥐> 후반부에 대한 감회가 대체로 부정적일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조사대상의 대다수가 처벌 장면에 놀라워하였으나, 흥미롭다고 정서 반응을 보인 A, C의 경우는 서사 전반의 흐름을 인지하며 인과응보적 의미를 되새기고 있었다. 거부감이 든다고 표현한 학생 가운데 처벌 장면을 기술한 학생의 경우는 ‘착하게 살더라도 끝이 좋을 수 없다. 나쁜 사람들에 의해 다 죽어버린다. 팔쥐가 독하다.’라고 덧붙여 감상을 표현하였다. 결국 이 학생도 불쾌한 정서에 팔쥐의 악행에 대한 감정이 짙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흥미롭다고 한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악인에 대한 인과응보에

더 무게를 두고 있었다.

이야기에 거부감을 표현하고, 처벌 장면을 기술하지 않은 2명은 모두 ‘감옥에 보내는 것으로 되지 않았는가. 자식이 먼저 죽는 것이 가장 큰 상처라는 데, 인간의 잔인성의 끝을 보여준다.’고 하거나, ‘인간이 이기적이다. 무섭고 슬프다. 모두 한 번씩 죽으니까. 그러니까 한 번 참아야 한다. 처음부터 잘해야 한다. 원님이 문제다. 처음부터 나타나서 문제이다.’ 라면서 후반부에 줄곧 제시되는 잔혹함에 주목하는 특징을 보였다.

D의 경우는 잔혹함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하여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E의 반응은 특별하다. 이러한 파국의 원인을 인간의 이기심으로 간주하다가 ‘원님의 등장’ 자체가 문제였다는 보고 있기 때문이다. 콩쥐와 팥쥐가 같은 것을 소망하게 됨으로써 벌어진 사태이기 때문에, 원님이 등장하지 않았으면 경쟁할 일도, 서로 죽이는 일도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한 번 참자.’라고 표현한 지점에서도 누군가 참았으면 경쟁 문제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 E의 특성이 발견된다. 이를 통해 E는 전·후반부가 그려내고 있는 갈등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 | | 조사대상A | 조사대상B | 조사대상C | 조사대상D | 조사대상E |
|----|------|---------------|---------------|---------------|---------------|---------------|
| 3차 | 기억진술 | 전후반부 처벌장면O | 전후반부 처벌장면O | 전후반부 처벌장면O | 전후반부 처벌장면O | 전후반부 처벌장면X |
| | 정서반응 | 지루하다. | 보통이다 | 흥미롭다 | 지루하다 | 선택 안 함 |

3차 조사는 <콩쥐팥쥐>에 담긴 경쟁 문제와 승리의 서사로서의 의의를 설명하고, 특히 잔혹한 처벌 장면이 갖는 의미를 강조한 후에 이루어졌다. ‘흥미롭다’가 1명, ‘보통이다’가 1명, ‘지루하다’가 2명, 1명은 선택하지 않는 결과를 보였다. ‘지루하다’는 답변은 반복되는 조사 방식으로 인한 반응으로 보인다. ‘거부감이 든다’를 선택한 경우가 감쇄된 것으로 볼 때, 후반부의 서사적 의미가 이해될 경우 <콩쥐팥쥐>의 잔혹함과 생경함

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지루함이 발생하였다는 단점도 있었지만, 3차 조사에서 드러난 사항 가운데 하나는 줄거리를 기술하는 문항에서 2차 조사 결과 다른 점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잔혹함에 대한 거부감이 강했던 D의 경우 3차 줄거리 기술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한 콩쥐는 원님이 스스로 일깨워 주게 하고, 원님은 딸 교육을 잘못 시킨 어머니에게 자신의 딸을 먹이는 벌을 내렸다.”라고 하여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 처벌 장면을 기술한 것은 물론이고, 각 장면에 대한 상세한 부연을 덧붙여 인과를 만들어 내고 있었다. <콩쥐팍쥐> 후반부에 대한 이해방식이 변화하였고, 이에 따라 정서 반응도 ‘거부감’에서 ‘지루함’으로 부정적 감정이 줄어든 변화가 보인 것이다.

후반부가 그려내고 있는 갈등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였던 E는 후반부를 “원님과 결혼하고 팍쥐가 콩쥐를 죽이고 팍쥐가 콩쥐인 척했다. 그 사실을 원님이 알게 되고 팍쥐를 사형했다.”라고 2차의 결과보다 더 짧게 기술하였다. 반복해서 기술하는 일에 지루해져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더 짧게 요약해서 기술하는 상황에서는 E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장면을 취사선택하는 사고 과정이 개입되어 있었을 것이므로, 인물들이 죽고 죽이는 장면만 열거된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E는 인간의 욕망이 발생하면 모두 죽는다는 인과만을 기억하는 것인데, <콩쥐팍쥐>에서 반복적으로 제시하는 잔혹한 갈등 문제를 직시하기 어려워하며, 서사에 대한 의미를 교육받은 후에도 <콩쥐팍쥐>의 승리의 서사로서 지니는 힘을 내재화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즉 <콩쥐팍쥐>의 후반부가 망각되는 현상은 잔혹한 갈등 문제를 외면하거나, 미처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못한 내면 상태가 <콩쥐팍쥐>의 작품서사와 충돌하여 그 이해와 기억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 설화의 후반부가 잘 기억되지 않는 까닭으로 잔혹성과 생경함이 원인이 되기도 하였지만, 수용자의 내면 상태가 원인이 되기도 하였

다. 후반부가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잔혹한 경쟁 문제에 대해 두려움이 발생할 때 후반부의 서사를 거부하는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III. 불합리한 경쟁 환경 극복과 승리의 서사로서의 가치

여기에서는 <콩쥐팥쥐>에 담긴 서사적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전·후반부가 동일한 인간관계 구도와 문제를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이 서사가 궁극적으로 인간의 경쟁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권선징악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현실적인 경쟁 환경이 반영된 이야기라는 점을 들어, <콩쥐팥쥐>가 우리 삶의 진실을 담고 있는 작품임을 입증하고자 한다. 그리고 작품 후반부에서 승리의 결과로 이끄는 서사의 힘을 포착해내면서, 불합리한 경쟁 환경의 난관을 헤쳐 나가는 과정이 지닌 의의를 점검하고자 한다.

1. <콩쥐팥쥐>가 제시하는 현실적인 경쟁 문제

<콩쥐팥쥐>의 기본형 ‘계모와 팥쥐의 박해-하늘의 도움-귀인과의 결혼-팥쥐에 의한 살해-부활 및 변신-복귀와 팥쥐에 대한 처벌’로 보면, 계모와 팥쥐의 박해와 하늘의 도움, 귀인과의 결혼까지를 전반부, 팥쥐에 의한 살해와 콩쥐의 부활 및 변신, 복귀와 팥쥐에 대한 처벌을 후반부로 나눌 수 있다. <콩쥐팥쥐>의 전·후반부는 작품 전반에 흐르는 분위기 또한 전환되지만, 전반부에 후반부가 침사되는 양상으로 전승되는 상황으로 볼 때도 상이하게 여겨지기도 한다. 하지만 인간관계 구도와 핵심 문제를 고려하면 <콩쥐팥쥐>의 전·후반부는 동일한 인간 문제를 다루고 있다.¹³⁾

13) 본고에서는 『한국구비문학대계』 구연자료들의 줄거리를 정리하여 동일한 각편들을 분류하여 정리한 『문학치료 서사사전』을 참고하였다. 『문학치료 서사사전』

『한국구비문학대계』의 전승자료들 가운데 후반부에까지 이야기가 이어지는 작품들을 기준으로 살펴보면,¹⁴⁾ 계모와 팔쥐의 박해가 드러나는 대

에는 설화의 전승 현황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편 가운데 서사적 전개에 있어 온전하다고 판단되는 구연자료를 대상으로 기본 줄거리로 선별해 놓았다. 이에 본고는 『문학치료 서사사전』의 <콩쥐와 팔쥐>를 기본 텍스트로 제시한다. 그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콩쥐의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팔쥐라는 딸이 있는 후처를 들었다. 계모는 콩쥐를 괴롭히기 위해 콩쥐에게는 나무 호미를 주어 돌밭을 메라하고 팔쥐에게는 쇠 호미를 주어 모래밭을 매게 하였는데, 꼬부랑 소가 나타나 콩쥐 대신 밭을 매주었다. 하루는 마을에 큰 잔치가 열렸는데, 계모는 콩쥐에게 밀 빠진 독에 물 붓기, 곡식 한 섬을 찢어 놓기 등의 어려운 일을 시켜 놓고 다 마치면 잔치 구경을 오라고 하였다. 콩쥐가 앉아 울고 있자 큰 구렁이가 독에 물을 채울 수 있게 도와주었고, 새들이 와서 곡식을 모두 쪼아 주었다. 그리고 황소가 나타나 잔칫집에 입고갈 옷과 신발을 주었다. 콩쥐는 잔칫집에 구경가는 길에 신발 한 짝을 잃었는데, 잔칫집에 한 선비가 와서 콩쥐의 신발을 보이며 이 신발의 주인과 혼인하겠다고 하였다. 그렇게 콩쥐는 선비와 결혼하게 되어 행복한 삶을 시작하였다. 하루는 선비가 외출하면서 콩쥐에게 오늘은 바깥에 나가지 말고 목욕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팔쥐가 콩쥐 집에 와서 선비가 언니와 함께 나가 목욕을 하라고 했다며 콩쥐를 설득했다. 콩쥐가 팔쥐와 함께 물가로 갔는데 아무래도 선비의 말이 마음에 걸려 목욕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러나 팔쥐가 콩쥐를 밀어 물에 빠뜨려 죽였다. 팔쥐는 콩쥐의 자리를 빼앗고 콩쥐인 척하며 선비와 부부로 지냈다. 죽은 콩쥐는 꽃이 되어 선비네 집 앞마당에 피었는데 선비가 그 꽃을 좋아하니 팔쥐는 꽃을 뜯어다가 아궁이 속으로 던져 버렸다. 콩쥐는 불씨를 얻으러 온 이웃에게 아궁이 속 빨간 구슬로 발견되었는데, 그 구슬에서 콩쥐가 나와 이웃에게 그동안의 일을 이야기하며 도와달라고 하였다. 콩쥐의 부탁으로 이웃 사람은 선비를 이웃집으로 불러내었다. 대접하는 밥상에 짹짹 젓가락을 두었는데 선비가 젓가락이 짹짹이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러자 콩쥐가 나타나 젓가락이 짹짹이인 줄은 알아보면서 자기 아내도 못 알아보느냐고 말하여 지금 선비의 아내가 콩쥐가 아닌 팔쥐임을 알렸다. 이에 선비는 팔쥐를 처형하였고 팔쥐의 시체로 반찬을 만들어 팔쥐의 어머니에게 먹이는 벌을 주었다.” 정운채, 『문학치료 서사사전』 제3권, 문학과학리뷰, 2009, 3281~3288쪽에서 인용.

- 14) 구비설화의 전국적 전승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집 『한국구비문학대계』에 따르면 다른 이야기가 덧붙여져 있지 않은 상태로 <콩쥐팔쥐>가 구연된 자료는 총 10편에 이른다. 이 자료들 가운데 본고에서 후반부라 일컫는 혼인 후 고난담에까지 이야기가 이어지는 구연자료는 5여 편이다. 이에 대해서는 정운채, 위의 책, 3281~3288쪽 참조. 본고는 이들을 동일한 경계의 작품들로 간주하여 각편들에 구현되어 있는 장면들을 근거로 활용하고자 한다.

표적인 장면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계모가 콩쥐와 팥쥐에게 밥을 일구어 내는 임무를 내리는 것이다. 계모는 콩쥐에게는 나무호미를 주고 팥쥐에게는 쇠호미를 주어 일을 마친 사람에게만 밥을 주겠다고 한다. 또 다른 장면으로는 훗날 콩쥐의 남편이 되는 귀인의 주축으로 열리는 잔치에 참가하는 일을 두고 계모가 콩쥐에게는 갖가지 집안일을 마치고 오라고 하고 팥쥐는 아무런 요구 없이 동행하는 것이다. 이를 보면 계모가 밥을 주는 일과 잔치에 참가하게 하는 일은 콩쥐와 팥쥐에게 있어서 계모의 권한이 발휘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후반부를 보면, 귀인이 콩쥐와 팥쥐에게 아내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문제가 주를 이룬다. 귀인이 신발의 주인인 콩쥐를 아내로 삼겠다는 것과 콩쥐의 자리를 빼앗은 팥쥐에게 속아 팥쥐를 아내로 대하는 것에서는 아내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권한이 귀인에게 귀속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게다가 콩쥐나 팥쥐 모두 귀인의 아내가 되기를 소망한다는 측면에서도 선택의 권한은 귀인에게 있다. 귀인 역시 계모와 같이 콩쥐와 팥쥐에게 있어 일종의 권한을 지닌 존재인 것이다.¹⁵⁾

이처럼 텍스트 상에 제시된 관계는 부모-자식, 남편-아내이지만, 이야기의 맥락에 따른 관계의 속성을 고려하면, <콩쥐팥쥐>의 전·후반부는 권위자를 둘러싼 경쟁자들의 관계를 보여준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전반부의 인간관계 구도는 계모라는 권위자를 중심으로 한 콩쥐와 팥쥐의 경쟁구도가 중심이 되고, 후반부는 귀인이라는 권위자를 중심으로 콩쥐와 팥쥐의 경쟁구도가 중심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전·후반부의 주요 갈등은 모두 권위자의 은혜를 두고 벌어지는 경쟁자와의 경쟁 문제라고 할 수 있다.¹⁶⁾

15) 계모는 콩쥐와 팥쥐에게 밥을 주는 일과 잔치에 데려가는 일에 대해서 권한이 귀속된 인물이고, 이 가정 내에서 콩쥐와 팥쥐에게 어머니로서의 권한을 지닌 존재이다. 귀인은 콩쥐와 팥쥐의 공통된 소망인 ‘아내’ 자리를 선정할 수 있는 권위를 지닌 존재로 등장한다. 이 글에서는 팥쥐어미와 귀인을 둘러싼 콩쥐와 팥쥐의 경쟁문제를 서술하게 논의하기 위해 두 존재를 ‘권위자’로 통칭한다.

<콩쥐팥쥐>가 다루는 경쟁의 모습은 단순하지 않다. 우선 계모의 차별 대우나 팥쥐의 모략에 의하여 콩쥐가 경쟁에서 승리하기에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이 그러하다. 검은 소와 같은 비범한 존재들의 도움을 통해 콩쥐가 모든 임무를 완수하고, 귀인이 배우자감으로 끈은 신발의 주인도 콩쥐였으며, 정식으로 혼인한 당사자 역시 콩쥐이다. 심지어 전처의 소생으로 팥쥐보다 적자로서의 존재감은 콩쥐가 더 크다. 권위자의 은혜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정당성은 콩쥐에게 있었으나, 정작 콩쥐는 경쟁에서 좌절하고, 그로부터 소외된다. 이렇게 <콩쥐팥쥐>에서 그려내고 있는 경쟁 문제의 특징 중 첫 번째는 실제적으로 서사의 주체가 보유한 정당성 내지 능력과 다른 판결이 내려진다는 것이다.

두 번째 특징은 경쟁 상황에서 판결의 힘을 권위자가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점에서 드러난다. 계모는 전처자식에 대한 악한 감정과 친자식에 대한 편애로 콩쥐에게 불리한 상황을 조성한다. 귀인의 경우 전반부에서는 콩쥐의 구원자가 되지만, 후반부에서는 콩쥐인 척하는 팥쥐의 정체를 알아보지 못하는 실수를 범한다. 콩쥐와 팥쥐에게 은혜를 베푸는 권한을 지닌 존재들이 각기 다른 이유로 콩쥐가 아닌 팥쥐의 손을 들어주는 것에서는 전·후반부가 동일하다. 은혜를 제공하는 권위자에게 절대적인

-
- 16) 경쟁(競爭)은 ‘같은 목적에 대하여 이기거나 앞서려고 서로 겨룬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 목적은 다양하겠으나, 한정된 재화나 가치를 얻기 위해 서로 다투는 수단적 활동을 두루 일컬어 경쟁이라고 한다. 경쟁은 상대방이 존재한다는 점을 전제로 이루어진다. 경쟁 결과가 상대와 비교에 의한 평가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경쟁은 적자생존의 생리가 적용된다. 강자만이 살아남는 공간에서 다른 개체와의 경쟁에서 패배하는 개체는 도태되며, 다른 종과의 경쟁에서 패배를 거듭하는 종은 멸망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박정준, 「인성 함양을 위한 스포츠 경쟁 매커니즘의 반성적 고찰」, 『교육과정연구』 제31권 3호, 한국교육과정학회, 2013, 284쪽. 이러한 의미에서 권위자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콩쥐와 팥쥐의 갈등은 경쟁 문제이다. 전반부의 식사와 잔치로부터 계속해서 배제되는 콩쥐의 상황은 경쟁의 패배라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팥쥐의 상태와 엄연히 비교되면서 경쟁에서 도태된 자아가 확인되는 비극의 장면이다. 그리고 팥쥐어미가 친딸과 전처소생을 차별하는 문제이니 만큼, 그 가정의 진정한 자녀 자리를 두고 벌어지는 경쟁 갈등으로 볼 수 있다.

선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콩쥐팥쥐>가 그려내고 있는 경쟁 상황의 특징이라는 것이다.

세 번째는 전반부에 이어 후반부에서도 악한 경쟁자 팥쥐가 반복적으로 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드러난다. 팥쥐가 전반부에서는 친모의 혜택으로, 후반부에서는 모략으로 콩쥐를 밀어내는 것처럼 경쟁에서 부당한 승리를 거머쥐는 사태는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정당하지 못한 경쟁자에게 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세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네 번째는 전반부에 등장하였던 구원자들이 후반부에는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드러난다. 전반부에서는 나무호미를 들고 울고 있던 콩쥐 대신 밭을 갈아준 검은 소라든가, 신발의 주인을 찾으러 와서 청혼한 귀인과 같은 구원자는 자발적으로 콩쥐 앞에 나타난다. 반면 후반부에서는 팥쥐의 모략으로 콩쥐가 죽음을 당하고, 콩쥐의 현신인 꽃이 불타는 아궁이 속으로 처박히는 난관이 발생하여도 콩쥐를 구원하는 존재가 등장하지 않는다. 콩쥐의 정당성과 능력을 ‘선(善)’이라고 개념화 한다면, 후반부에서는 항상 선이 승리한다, 선하면 하늘에서 돕는다는 명제는 통하지 않는다. <콩쥐팥쥐>에서 드러난 경쟁 문제의 네 번째 특징은 이러한 명제가 항상 통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렇게 전·후반부를 통틀어 보면, <콩쥐팥쥐>는 서사의 주체가 정당성 내지 능력을 보유하였다고 해서 경쟁에서 반드시 승리한다고 볼 수 없고, 공정한 권위자에게서도 절대성을 기대할 수 없으며, 정당하지 못한 경쟁자에게 패하는 일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고, 선하면 하늘이 돕는다는 명제가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즉 <콩쥐팥쥐>는 권선징악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을 주는 이야기이기보다는 불합리한 경쟁 환경의 갖가지 난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옛이야기가 냉혹하고 현실적인 경쟁 문제를 담고 있다는 점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다.

2. <콩쥐팍쥐>에 담긴 ‘승리의 서사’로서의 힘

<콩쥐팍쥐>의 진가는 냉혹한 경쟁 문제에 대한 진실은 물론, 중국에는 콩쥐가 경쟁에서 승리를 거머쥔다는 점에서 부각된다. 옛이야기의 통상적인 특징인 해피엔딩이라는 결말에서 더 나아가, <콩쥐팍쥐>에 담긴 승리의 과정은 현실적이고 치밀하다. 이는 콩쥐가 권위자인 계모·귀인과 경쟁자인 팍쥐를 대하는 인간관계 맺기 방식에서 발견되며, 후반부에서 더욱 잘 드러난다.

먼저 인물의 인간관계 맺기 방식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콩쥐가 계모, 귀인, 팍쥐를 대하는 방식은 전·후반부에 걸쳐 변모한다. 전반부의 콩쥐는 자신에게 불리한 여건을 조성하는 계모의 악행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였으나, 후반부에서의 콩쥐는 계모에 대한 처벌을 행한다. 귀인이 찾는 신발의 주인이 자신이라며 자기 정당성을 주장하지도 않고 귀인이 자신을 알아볼 때까지 잠자코 있었던 콩쥐가 후반부에서는 자기 부인도 알아보지 못한 귀인에게 “젓가락이 짹짹인 것은 알아보고, 제 부인은 알아보지 못하냐.”라며 당당함을 주장한다. 즉 권위자에 해당하는 계모와 원님에 대한 콩쥐의 대응방식은 ‘피동적’에서 ‘능동적’으로 변모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전반부의 콩쥐는 매번 부당한 방식으로 자신을 밀어내고 승리를 거머쥔 팍쥐에 대해서 배척하지 않는다. 심지어 귀인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팍쥐의 요구를 들어주다가 팍쥐의 손에 죽게 된다. 여기까지는 콩쥐가 자신의 인간관계 영역 안에서 팍쥐를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콩쥐가 팍쥐를 대하는 태도는 ‘수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에 반해 후반부에서 콩쥐는 자신을 죽이고 그 행세를 하는 팍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감행하여, 그 관계망에서 배제시킨다. 이는 악한 경쟁자에 대한 ‘배타적’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콩쥐의 인간관계 맺기 방식이 변화되는 과정에는 갈수록 더 많은 에너

지가 요구된다는 특징이 있다. 권위자와의 관계에서 피동적인 자세보다는 능동적인 자세가 훨씬 더 많은 용기와 힘이 필요하다. 그리고 팥쥐와의 관계도 그러하다. 악한 경쟁자를 용서하고 포용하는 것이 처벌하는 것보다는 어렵겠지만, 악한 경쟁자의 만행에 속절없이 당하는 것은 체념 내지 무기력, 아둔함이라는 멍에를 벗기 어렵다. 악한 경쟁자에 대한 장악 능력을 미비한 상태에서의 수용적 태도는 자신의 정당성 수호를 목적으로 한 배타적 태도에 비하여 힘이 약한 상태라고 평가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콩쥐는 더 큰 난관에 치달을수록 더 큰 용기와 힘을 내는 방식으로 대응하였으며, 그 관계 안에서 주체성을 지닌 존재로 거듭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앞서 논한 ‘공정한 권위자에게서도 절대성을 기대할 수 없으며, 선하면 하늘이 돕는다는 명제가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불합리한 경쟁 문제에 대한 대안이 된다. 경쟁구도에서 자기정당성이나 선(善)에만 의존할 수 없으며, 서사의 주체 스스로가 힘을 내어 사태를 직면해야 승리할 수 있다는 의미를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후반부의 이야기 흐름을 통해서도 승리로 이끄는 힘이 확인된다. 후반부는 ‘①팥쥐에 의한 죽음, ②꽃으로 환생하여 귀인 앞에 현신, ③팥쥐에 의해 아궁이에 던져지고 불씨(구슬)로 변신, ④이웃집으로 이동하고 이웃 할머니에게 귀인을 초대할 것을 부탁, ⑤귀인과 대면하여 진실을 고함, ⑥자기 자리를 되찾고 팥쥐와 계모에 대해 처벌함’로 6단락으로 정리될 수 있는데, 텍스트 저변에 깔린 서사적 의미를 분석해보면 승리의 결말을 이끌어내는 요인을 발견할 수 있다.

①단락과 같이 텍스트 상에서의 인물의 죽음은 그 인물이 서사의 전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 버린 것으로, 귀인과 팥쥐의 인지영역 밖으로 밀려나 버리는 것이고, 권위자(귀인) 및 경쟁자(팥쥐)와의 관계망에서 배제된 상태를 의미한다. 서사 차원에서의 의미는 서사의 주체가 대상과의 관계에서 물러나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②단락의 경우, 콩쥐가 땅에 뿌리를 박고 있는 식물로의 변신하여 꽃

있이 피고 짐으로써 귀인에게 자신을 알리는 것으로, 이는 동적이기보다 정적인 이미지에 가까우며, 대상이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는 방식이 아닌 간접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존재감이나 의사를 표명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서사의 주체가 대상과의 관계에서 물러나 있다가, 정적이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접근을 시도한다는 것이다.

③단락은 또 다시 시련이 닥쳤을 때의 상황이다. 이때는 ‘아궁이의 불씨’가 지닌 의미가 중요하다. 아궁이가 있는 부엌은 전통가옥의 구조 상 집안의 안쪽에 배치되며, 어두운 공간이다. 그리고 아궁이는 음식을 만들고 집안의 보온을 담당하여 가족구성원의 건강과 직결되는 기능을 한다. 그래서 예로부터 아궁이는 항상 청결함이 유지되었어야 하고, 아궁이의 불이 꺼지지 않고 지속되는 것을 집안의 안녕을 보장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것은 집안의 아녀자의 몫이었다.¹⁷⁾

이러한 속성으로 볼 때 콩쥐가 ‘아궁이의 불씨’로 변신한다는 것은, 귀인의 아내라는 자리에서 밀려났지만 가정의 안녕을 위하여 아내의 도리를 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집안의 안쪽, 어두운 곳이라는 부엌의 이미지로 볼 때 그 노력이 겉으로 부각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청결함과 불씨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은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는 것을 뜻한다. 결국 이 지점의 서사적 의미는 서사의 주체가 대상과의 관계에서 또 다시 밀려났을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지속적으로 도리를 다한다는 것을 말한다.

④단락은 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인물의 개입이 드러나는 지점이다. 불씨로 변신한 콩쥐가 악한 경쟁자가 없는 이웃집으로 이동한다는 것과 새로운 인물이 등장한다는 것은 사건이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는 것을 뜻한다. 즉 서사의 주체가 딛고 있던 판이 변화한다는 것이며, 서사의 물길이 바뀔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다.

17) 박재인, 「한중일 조왕서사를 통해 본 가정 내 책임과 욕망의 조정 원리와 그 문학치료학적 의미」, 건국대 박사학위논문, 2015, 24쪽.

이때 콩쥐는 이웃할머니에게 귀인을 이웃집으로 초대할 것을 부탁한다. 귀인과의 직접적인 대면을 준비하는 지점으로, 관계가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자 지체 없이 일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는 서사의 주체가 대상과의 관계에서 지금까지 유지되었던 가치체계가 변화될 수 있는 환경을 만나,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일을 추진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①~④에서 콩쥐의 부활과 변신은 앞서 2장에서 논한 ‘서사의 주체가 정당성 내지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경쟁에서 반드시 승리한다고 볼 수 없다’는 불합리한 경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자세를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다. 주어진 환경 내지 여건에 따라 자신을 감추거나 드러내기도 하며, 정적이거나 동적인 형세로 일을 추진하는 유연하고도 다각적인 전략의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⑤단락은 각편에 따라 상이한 장면으로 구현되어 있지만,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귀인이 자신의 앞에 놓여있는 젓가락이 짝짝이인 것을 인식하자, 콩쥐가 그것은 알아보면서 제 부인은 알아보지 못하느냐고 질책하는 장면이다. 이는 콩쥐가 직접 모습을 드러내면서 귀인 스스로 판단의 오류를 깨닫게 하는 과정인데, 위의 각편의 경우는 콩쥐가 귀인을 꾸짖는 형상으로 구현되어 있다. 즉 서사의 주체가 대상과의 관계에서 확신과 용기로 무장하여 마음껏 자신을 드러내며 자기정당성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다. 서사의 위세가 강해져서 더 이상 권위자의 판단능력에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권위자를 압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단락이 의미하는 바는 앞서 2장에서 공정한 권위자에게서도 절대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불합리한 경쟁 환경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⑥단락은 콩쥐가 원래의 자신을 자리를 되찾고, 팥쥐와 계모에 대한 처벌을 감행하는 지점이다. 이는 서사의 주체가 제 지위로 복귀하면서 악한 존재들을 관계영역 안에서 완전히 제거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앞의 제시문에서 보인 콩쥐의 모습은 권위자인 귀인에게 호통을 치고 있어

그 위세가 귀인을 것을 넘나드는 것으로 느껴진다. 하지만 다시 귀인의 아내로 자리한다는 것에서 볼 때 강력해진 위세가 계속 상승되는 것이 아닌, 위세가 감화되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형세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공쥐의 강력한 기운은 계모와 팔쥐에게로 향한다. 각편에 따라 다른 장면으로 구현되었지만, 항상 논쟁의 중심에 있던 것은 팔쥐의 살점으로 음식을 만들어 계모에게 먹이고 ‘네 딸년의 살점이다’라고 밝혀 계모 역시 놀라 죽게 하는 장면이다. 악인에게 잔혹한 방식으로 처벌이 가해지는 것인데, 서사의 흐름으로 볼 때 그간의 축적된 분노의 강도가 악인에게로 향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이 잔혹함은 처벌 주체의 위세가 극대화되어 표출되는 의미도 지니고 있다.¹⁸⁾

각편에 따라 처벌의 주체는 공쥐이거나 귀인이기도 한다. 처벌의 주체가 귀인¹⁹⁾일 경우는 경쟁 상황에서 승리하기 위해 갖은 비열한 방식을 동원하고 인간의 생명마저 강탈한 악인에 대해 강력한 공적 처벌로 볼 수 있다. 권위자에 의해 악행에 대한 경계심을 촉발되면서,²⁰⁾ 공쥐의 정당성 회복에 대한 의미가 부각되는 것이다.

처벌의 주체가 공쥐일 경우는 ⑤단락에서 드러난 공쥐의 위세가 ⑥단락에서는 귀인과의 관계에서는 감화되고, 계모·팔쥐와의 관계에서는 극

18) 이에 대해서 정인혁은 ‘육형(肉刑)’의 잔혹성을 죄를 지은 존재 자체의 말살이며, 육형을 당한 죄인이 신체에 변형을 가하여 ‘비인화(非人化)’하고, 의례적으로 가족동동체에 대한 단죄도 포함하며, 사회적 존재감 말살, 공동체로부터의 배제와 소외를 처했다고 해석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정인혁, 「<공쥐팔쥐전>의 결말과 ‘육형(육형)’의 의미 연구」, 『한국문화이론과비평』 제64집, 2014, 239쪽.

19) 귀인은 보통 원님이나 임금님으로 제시되는데, 다수의 공적 입장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입장에서나, 계모와 팔쥐의 박해로부터 공쥐를 구원해줄 만큼 더 큰 권한을 보유한 권위자의 입장에서 힘을 발휘하는 의미가 된다.

20) 이 장면에서는 공포심이 자극되는데, 그 공포는 처벌의 주체가 보이는 잔혹함과 강렬한 위세에 기인한 것이므로, 처벌의 주체가 견지하는 기준 내지 판단체계가 각인되는 효과가 있다. 즉 이 장면의 잔혹성은 계모와 팔쥐와 벌인 악행에 대한 경계심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화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처벌 방식의 잔혹함은 자신의 위세를 극대화하여 표현하는 것인데, 이를 통해 경쟁구도에서의 악인들을 완전히 소멸시키면서 동시에, 악인들에 대한 장악 능력이 강조된다. 그 잔혹함은 생명마저 위협하는 무도한 경쟁자로부터 서사의 주체가 자신의 영역을 공고히 하는 데 온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위약하던 콩쥐가 잔인함을 드러낸다는 점이나, 팥쥐의 살점을 계모에게 먹이는 처벌방식에 생경함 내지 거부감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오히려 이것은 콩쥐가 이제는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자기정당성을 수호할 수 있다는 능력의 변화를 각인시키는 효과를 지닌다. 텍스트에서는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이후에는 콩쥐가 같은 일로 수모를 겪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는 2장에서 논한 바와 같이 비열한 방식으로 자신의 자리를 빼앗는 악인의 출현이 빈번하다는 문제에 대한 방어책이 될 수 있다.

이처럼 <콩쥐팥쥐>는 우리로 하여금 불합리한 경쟁 환경의 난제를 극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제공한다. 그리고 곳곳에는 서사의 주체가 승리하게 되는 방향으로 서사의 흐름을 추동시키고, 우리를 승리의 서사 길로 이끄는 힘이 담겨져 있기도 하다.

온전한 형태의 <콩쥐팥쥐>는 모든 가치가 경쟁 행위로 이어지고 있는 현대사회에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경쟁에서의 승리가 큰 가치로 여겨지면서, 이 설화에서 그려내고 있는 불합리한 경쟁 환경이 사회 곳곳에서 조성되고 있다. 현대사회의 구성원들은 수많은 난관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경쟁하지 않으면 도태되고 마는 치열한 환경에 놓여있다. 그로부터 각종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정서가 유발되고, 악순환이 되어 상호 불신과 적대감이 만연한 불합리한 경쟁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환경 아래 우리는 쉽게 경쟁에서 패한 자신을 확인하고, 좌절감이나 회의감에 빠져들기 마련이다.²¹⁾

이때 <콩쥐팥쥐>는 경쟁이 만들어 놓은 폭력을 물리치고 정의로운 규

칙, 정의로운 경쟁 관습을 조성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하는 이야기로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공정하지 못한 경쟁에서 벌어지는 소외감을 물리치는 이야기로서 문학치료적 효용성을 기대할 수 있다. 불합리한 경쟁자에 대한 처벌과 그로부터의 승리 과정, 경쟁질서 속에 자기 정당성을 입증하는 이야기는 후반부의 생경함을 외면하지 않을 때 그 가치가 오히려 드러난다. 본고는 이러한 의미에서 <콩쥐팍쥐> 후반부의 현대적 가치를 논의한 것이다.

잔혹성을 충격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정도를 고려하여, 인간 문제의 진실을 직면하는 용기가 필요한 대상들에게는 <콩쥐팍쥐>가 효과적일 수 있다. 때로는 자라나는 아동 및 청소년에게 오히려 필요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 사회의 병폐들을 여과 없이 노출하는 매체들보다는 <콩쥐팍쥐>가 오히려 안정적이며, 간접경험이 주는 기대효과가 클 수 있기 때문이다. 잔혹성과 날 것의 인간문제가 청소년에게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면밀한 고찰을 통한 적정 수준이 점검되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IV. 결 론

이 연구는 <콩쥐팍쥐>의 후반부가 망각되는 현상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문학치료학의 서사이론에 의거하여 분석하여 후반부의 의의를 입증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콩쥐팍쥐>의 후반부가 망각되는 현상의 요인을 자기서사와 작품서사의 관계로 논의하고, 온전한 형태의 <콩쥐팍쥐>가 지닌 서사적 가치를 검토하였다.

2장에서는 <콩쥐팍쥐>의 전반부만 기억되는 현상의 원인에 대해 살펴

21) 박정준, 「인성 함양을 위한 스포츠 경쟁 매커니즘의 반성적 고찰」, 『교육과정연구』 제31권 3호, 2013, 281~297쪽.

보았다. <콩쥐팥쥐>의 전반부만 기억되는 요인 가운데 하나는 현대적 매체로 향유되는 <콩쥐팥쥐>의 형태가 전반부까지만 제시되어 있다는 점을 들었다. 동화로 각색되면서 어린이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삭제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실제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하여 후반부에 대한 거부감을 분석하였다. 이 설화에 대한 청소년의 반응을 살펴보았는데 후반부의 잔혹성과 생경함이 원인이 되기도 하였지만, 더 중요한 요인은 수용자의 내면 상태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난관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쟁 환경을 소화하기를 거부하거나, 승리의 서사가 지닌 힘이 내재화 되어 있지 않은 내면이 <콩쥐팥쥐>의 서사와 충돌하여 이해와 기억을 방해할 수 있다고 논하였다.

3장에서는 <콩쥐팥쥐>의 전·후반부가 지닌 서사적 의미와 가치를 논하였다. 텍스트 상에서는 상이하지만 전·후반부의 주요 갈등은 모두 권위자의 은혜를 두고 벌어지는 경쟁자와의 경쟁 문제라는 점을 밝혔다. <콩쥐팥쥐>가 권선징악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을 주는 이야기이기보다는 치열한 자세로 임해야 하는 현실적인 경쟁 환경이 반영된 작품서사라고 분석하였다. 그리고 <콩쥐팥쥐>의 후반부에서 난관이 빈번하게 출몰하는 불합리한 경쟁 문제를 극복하는 서사의 힘이 발견된다고 보았다. <콩쥐팥쥐>의 온전한 서사 형태에서는 공정하지 못한 경쟁에서 벌어지는 소외감을 물리치는 이야기로서의 문학치료적 효용성을 기대할 수 있다. 불합리한 경쟁자에 대한 처벌과 그로부터의 승리 과정, 경쟁질서 속에 자기 정당성을 입증하는 이야기는 후반부의 생경함을 외면하지 않을 때 가치가 옳이 드러난다는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신데렐라형 이야기’의 통념적 의미 범주를 넘어선 <콩쥐팥쥐>만의 특색을 드러낼 수 있었다. 여타 ‘신데렐라형 이야기’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주체적인 콩쥐, 용기와 결단력을 지닌 콩쥐의 모습을 보이며, <콩쥐팥쥐>의 후반부는 신데렐라 콤플렉스가 지닌 한계점을 직시하고 한층 더 나아가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승리의 힘을 입증해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공쥐팔쥐>의 후반부에 대한 학적 관심이 지속되어 자칫하면 사라질 수 있었던 우리 문화유산의 현대적 가치가 온전히 보존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강미정, 「우울증 서사로 보는 <콩쥐팥쥐>·<상사뱀>·<고분지통>», 『한국고전연구』 제16집, 2007, 265~292쪽.
- 권순궁, 「<콩쥐팥쥐전>의 형성과정 재고찰», 『고소설연구』 제34집, 2012, 251~283쪽.
- 권순궁, 「전래동화 <콩쥐팥쥐>의 형성과정», 『민족문학사연구』 제52집, 2013, 110~141쪽.
- 김기창, 「「콩쥐팥쥐」와 「신데렐라」의 비교 고찰», 『국제어문』 제8집, 1987, 135~158쪽.
- 박재인, 「한중일 조왕서사를 통해 본 가정 내 책임과 욕망의 조정 원리와 그 문학치료학적 의미», 건국대 박사학위논문, 2015, 1~216쪽.
- 박정준, 「인성 함양을 위한 스포츠 경쟁 매커니즘의 반성적 고찰», 『교육과정연구』 제31권3호, 2013, 281~297쪽.
- 성정희, 「우울증에 대한 문학치료학적 접근과 서사지도», 『문학치료연구』 제14집, 2010, 141~166쪽.
- 오윤선, 「세계의 신데렐라유형 이야기군 속에서의 <콩쥐팥쥐 이야기> 고찰», 『동화와번역』 제11집, 건국대 동화와번역연구소, 2006, 261~289쪽.
- 이관일, 「<콩쥐팥쥐> 이야기 재고», 『겨레어문학』 제6집, 1972, 24~39쪽.
- 이효성, 『콩쥐팥쥐』, (주)지경사, 2008, 1~38쪽.
- 장덕순, 「『CINDERELLA』와 『콩쥐팥쥐』», 『국어국문학』 제16집, 1957, 123~130쪽.
- 정운채, 「문학치료와 자기서사의 성장», 『우리말교육 현장연구』 제4집 2호, 2010, 7~54쪽.
- 정운채, 「심리학의 지각, 기억, 사고와 문학치료학의 자기서사», 『문학치료연구』 제20집, 2011, 9~28쪽.
- 정운채, 『문학치료 서사사전』 제3권, 문학과치료, 2009, 2488~3774쪽.

정인혁, 「<콩쥐팍쥐전>의 결말과 ‘육형(肉刑)’의 의미 연구」, 『한국문학이론과비평』 제64집, 2014, 229~249쪽.

조은상, 「<콩쥐팍쥐>에 대한 반응을 통해 본 부모가르기서사와 우울성향 자기서사」, 『문학치료연구』 제13집, 2009, 139~181쪽.

초록개구리, 『별하나 책하나 전래동화 08 -콩쥐팍쥐』, 계림, 2004, 1~34쪽.

Narrative Value in the Later Half of Folk Tale *Kongji and Patji*

Park, Jai In*

As for the reason why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Kongji and Patji* have not been properly recognized beyond the semantic category of the common notion that global Cinderella-type stories normally have, this study ascribed to the fact that a phenomenon of remembering the tale of *Kongji and Patji* only as ‘salvation of a nobleman from the persecution of a stepmother’ has prevailed. Accordingly, with some critics on neglecting the later half of *Kongji and Patji*, a literary therapeutic method to preserve the narrative value that *Kongji and Patji* contains in a complete form has been conceived.

Through this study, it is desired not to be regarded as a story reflecting the Cinderella complex but to have a result to be aware of the fact that competition and war would be the issues we have to inevitably encounter in our life, reveal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Kongji and Patji* that contains the power to face war and win a victory and preserve entirely the process of reasonable and meticulous success provided by Korea’s cultural heritage of *Kongji and Patji* which could have nearly disappeared.

* HK Research professor, KONKUK UNIVERSITY

Key words: *Kongji and Patji*, transmission status of *Kongji and Patji*, modern transmission method of *Kongji and Patji*, competition mechanism, narration of victory

필자 E-Mail: bettyblue82@hanmail.net

투고일: 2016년 3월 31일 / 심사완료일: 2016년 5월 3일 / 게재확정일: 2016년 5월 3일